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4

“우리도 함께 뛰다”

마라톤 열기 품고 ‘스피드축제’ 홍보

전남도청 동호회

전남도청 마라톤 동호회(회장 주신희·58·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가 올해도 어김없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회원들의 3·1절 마라톤 대회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 지난 2002년 동호회가 창립된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참가할 정도다. 특히 올해 대회에 참가하는 100명의 동호회원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최근 인사 이동으로 회원들의 근무처가 바뀌고 바쁜 업무로 함께 모일 기회가 적었던 만큼 이번 대회가 선·후배 직원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인데다, 10월 영



전남도청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24일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 도청 앞에서 '2011년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영양 F1 성공개최 붐 조성

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에서 열리는 '2011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 ship) 코리아 그랑프리 성공 개최 분위기를 띄우는 최고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회원들은 3월 2일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티켓 문철소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하루 전 열리는 3·1절 마

라톤을 F1 대회 붐 조성의 자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았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올 대회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을 대량으로 확보해 이날 대회장에서 나눠주는 한편, '2011 세계인의 스피드축제 F1 질주!'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달리면서 F1 대회 홍보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물론, '좋은 기록'에도 욕심내고 있다. '철인'으로 불리는 주신희 회장을 비롯, 마니아 수준인 마라톤러들이 즐비하다.

우선 주 회장은 지난 2003년 마라톤을 시작한 뒤 울트라마라톤 10회, 풀코스 34회, 하프 90회 등 모두 134개 대회에 참여, 완주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마니아수준 마라톤러 즐비

이경석(해양항만과), 김송원(감사관실), 정유화(정보화담당관실)씨 등 14명도 전문 마라톤러 수준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하프 코스를 겨냥해 매일 일과 시작

전후로 청사 체력단련실을 찾아 체력을 다지고 있다. 풀 코스를 3시간30분대에 주파하는 김송원씨와 강영구(소방본부), 정인화(지역계획과), 강경문(F1대회지원본부)씨 등도 상위권 입상을 노리고 있다.

주신희 회장은 "2011 F1 대회의 성공 개최와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바라는 도민의 바람을 등에 업고 최선을 다해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최경주> <양용은>

최경주·양용은 32강행 '동네북'된 우즈 집으로

WGC 매치플레이 1회전... 첫 출전 노승열·김경태 탈락

'골프황제' 우즈, 1라운드 탈락 '골욕' 양용은(39)과 최경주(39·SK텔레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등 세계 6대 프로골프 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특급대회인 월드챔피언십(WGC) 역센츄어 매치플레이 대회 1회전을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재기를 노리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토마스 비요른(덴마크)과 연장전까지 갔다가 무릎을 꿇어 깊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양용은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마리아나 리츠칼튼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 64강전에서 최근 상승세를 타는 알바로 키로스(스페인)를 연장 두 번째 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물리쳤다.

양용은은 32명이 겨루는 2회전에서 2009년 브리티시오픈 우승자 스티븐 싱크(미국)와 대결한다. 싱크는 1회전에서 작년 대회 우승자인 이안 풀터(잉글랜드)와 19번째 홀까지 가는 연장전을 벌여 제압하는 특성을 발휘했다.

'벤 호건' 조에서 11번 시드를 받은 양용은의 첫 번째 상대는 지난 13일 끝난 유럽프로골프 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장타자 키로스(6번 시드)였다. 8번홀까지 2홀을 뒤진 채 끌려가던 양용은은

10번홀과 11번홀을 연속으로 따내며 반격을 시작했다.

16번홀에서 1홀 차 역전에 성공한 양용은은 18번홀에서 키로스에게 6.5m짜리 버디 퍼트를 맞고 연장전으로 끌려들어 갔다. 연장 첫 번째 홀을 파로 비긴 양용은은 2번홀에서 버디를 잡아내 파에 그친 키로스를 따돌렸다.

최경주도 만만치 않은 상대인 레티프 구센(남아공)을 1홀 차로 누르고 2회전에서 라이언 무어(미국)와 만난다. 15번홀까지 우열을 가리지 못한 최경주는 16번홀에서 버디를 잡아 앞서 나갔고 남은 2개 홀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리를 지켰다.

작년 11월 이후 승수를 추가하지 못한 최경주는 11번홀에서 1홀을 뒤지던 18번홀에서 연장전으로 끌고 가는 멋진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지만, 연장전 첫 번째 홀에서 티샷을 오른쪽 범블 숲 속으로 날려버린 뒤 세 번째 샷 만에 볼을 페어웨이로 올려놓으며 1라운드에서 탈락했다.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한 김경태(25)는 제이슨 데이(호주)에 2홀을 남기고 3홀 차로 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노승열(20)도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해 세계랭킹 2위 마르틴 카이머(독일)에 6홀을 남기고 7홀을 내주는 완패를 당했다.

/연합뉴스

“완벽한 통신 지원... 고객 소통 책임집니다”

KT 호남 무선망 운용단

“고객만족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제46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에 참가하는 KT 호남무선네트워크운용단 임직원 일동이 올해 경영 목표인 ‘고객만족’을 위해 달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전 직원이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한다는 각오 아래 이번 마라톤 대회 참가를 결정했다.

고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현장 경영을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수한 품질을 알리는 시간을 갖겠다는 계획이다.



KT 호남무선네트워크운용단 직원들이 3·1절 마라톤 대회를 통해 '발로 뛰는, 고객만족'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무선 분야 서비스 종합 제공

Wonderland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윤종복(52) 단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조직 내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 조강, 등산, 축구 등으로 단련된 만능 스포츠맨으로 알려진 윤 단장이 '출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든다는 각오로 조직 내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단장은 “본인이 즐겨워야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이런 남도의 봄을 달리면서 직원들간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대회 이후에도 마라톤 동호회를 만들어 꾸준히

활동하면서 풀 코스를 처음으로 완주하는 직원에게는 포상계급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팀 최초의 여성팀장인 강문희(44) 팀장도 이번 대회에 함께한다. 강 팀장은 10여년전 전남 독립기념관 마라톤대회에서 아이의 무모차를 밀고 코스를 완주

윤종복 단장 만능스포츠맨

하며 주목을 받았던 경력을 갖고 있다. 강 팀장은 “40세 이전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뤄 왔었다”며 “이번 대회를 풀코스 완주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가장 화려한 마라톤 경력을 갖고 있는 임완철(48) 팀장은 하프코스를 거느린 소 화해낼 만큼 베테랑이다. 임 팀장은 이번 대회에서 선두에서 뛰면서 팀원들의 페이스 조절을 도와 가며 전원완주의 목표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3·1절 대회는 한해 시작 내딛는 시발점”



심재용의 마라톤 이야기

달리인들의 '봄 축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던 날씨가 따뜻한 봄기운을 담고 우리 곁으로 봄이 다가왔다. 포근한 날씨는 겨우내 잠자고 있던 달

리기에 대한 욕망을 깨우고 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의 대표적 인 마라톤 대회가 벌써 46회째를 맞이하

고 있다. 추운 겨울 내내 움츠려 있던 몸과 마음이 한 가닥 봄의 기운을 따라 서서히 일어나듯이 3·1절 마라톤 대회는 전국 달리기인들의 질주본능을 일으킨다. 2011년 한해를 시작하는 활기찬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3·1절 마라톤 대회는 다른 때와는 달리 구제역의 여파 속에 전국적으로 많은 대회들이 취소되는 가운데 열리게 된다.

그만큼 이번 대회의 골인지점이 구제역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 되었으면 한다.

전국의 많은 달리기인들이 겨울을 지내는 동안 많은 훈련량으로 체력을 비축하고 이번 대회를 위하여 준비해왔던 만큼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번 광주일보 3·1절 대회에 출발선에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발걸음인 만큼 달리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회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대회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자. <광주시 육상경기연맹 부회장겸 전문이사>

최나연, “청야니 내게 맡겨”

HSBC 위민스 첫날 3언더파 2위

신지애·한희원 1언더파 공동 7위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왕과 최저타수상을 차지한 최나연(24·SK텔레콤)이 2011 시즌 무서운 상승세를 탄 청야니(대만)를 막으려고 나섰다.

최나연은 24일 싱가포르 타나메라 골프장 가든 코스(파72·6547야드)에서 개막한 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3언더파 69타를 쳤다.

단독 선두 아리무라 치에(일본·4언더파 68타)에 1타 뒤진 2위에 오른 최나연은 2언더파 70타를 치며 공동 3위에 자리 잡은 청야니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갔다.

시즌 개막전 혼다 LPGA 타이일랜드에서 공동 15위에 그쳤던 최나연은 대회 첫날부터 청야니, 크리스티 커(미국·2언더파 74타)와 동반플레이를 펼치며 양보 없는 경쟁을 벌

였다. 전반에는 청야니에 1타를 뒤졌던 최나연은 11번홀(파3)에서도 1타를 잃어 주도권을 넘겨 주는 듯했다.

하지만 최나연은 12번홀(파4)에서 버디로 만회한 뒤 16번홀과 17번홀(파4)에서 잇달아 1타씩을 줄여 후반에 버디 3개를 보기 3개로 맞바꾸며 제자리걸음을 한 청야니를 앞질렀다.

LPGA 투어 6년차 유선영(25·한국인삼공사)은 2언더파 70타를 쳐 청야니, 카리 웹(호주), 카렌 스타플스(잉글랜드)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2009년 이 대회 우승자이자 세계랭킹 2위 신지애(23·미래에셋)도 1언더파 71타를 적어내며 한희원(33), 허미정(22·코오롱) 등과 공동 7위에 올라 선두 추격의 발판을 놓았다.

지난주 시즌 개막전에서 한 홀에서 5타를 잃는 어이없는 실수로 청야니에게 우승컵을 넘겨준 김민정(23·하나금융)은 이번과 72타를 쳐 LPGA 투어 데뷔전을 치른 서희경(25·하이트) 등과 함께 공동 13위로 첫날을 마쳤다.

/연합뉴스

호랑이 27년만에 제주 나들이

내달 12일 넥센과 시범경기

호랑이들이 27년만에 제주도 나들이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가 내달 12일 오후 1시 제주 오라구장에서 넥센 히어로즈와의 2011년 시범경기 개막전을 치른다.

넥센과의 시범경기는 당초 목동구장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프로야구 저변확대와 제주 지역 야구팬들에게 프로야구 경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로 장소가 변경됐다.

경기는 12일과 13일 오후 1시에 시작된다. 제주도 시범경기는 지난 2000년에 시작되어 2001년, 2005~2008년에 개최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8년 SK와 두산의 경기가 치러졌다.

KIA에게는 27년만의 제주도 방문이다. KIA는 해태시절인 1984년 9월22일과 23일 제주도에서 OB 베어스와 페넨트레이스 경기를 치른 적이 있다. 양팀은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기념품으로 사인볼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KIA는 내달 12일 시범경기 개막에 앞서 11일 넥센과 오라구장에서 연습경기를 갖고 몸을 풀 예정이다. 또 3월 7·8일에는 대구에서 삼성과 두 차례 연습경기를 갖게 되며, 9일에는 SK와 무등경기장에서 연습경기를 갖고 시즌 준비에 나서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